

“동학은 민초들을 살리려는 ‘살림 사상’ 이었다”

용담유사

최재우 지음·박맹수 옮김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이 칼 저 칼 년짓 들어/ 호호 망망 너른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 노래 한 곡조를 시호 시호 불러나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동학을 창도한 수운(水雲) 최재우(1824-1864) 선생이 1861년 3-4월께 지은 ‘검가(劍歌·칼노래)’는 10구에 불과하지만 강렬한 변혁의 의지를 품고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칼노래’를 부르며 물레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려 했다는 빌미를 만들어 수운을 체포해 처형했다. 경신 사월(1860년 음력 4월) 5일, 오련 구도 행각 끝에 득도를 한 수운은 포교를 통해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19세기 중엽, 조선 민초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나라 안으로는 전염병과 재해, 토지세, 군역 등으로 고통 받았고, 나라 밖으로는 밀려드는 서양 열강에 위기감을 느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학은 민초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동학의 가르침은 2대 교조 해월(海月) 최시형(1827-1898)의 38년에 걸친 지하 포교를 거쳐 마침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됐다. 당시 인구 1052만 명 가운데 250만~350만 명(희생자 30만 명 추정)이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참가했다고 한다. 수운에서 비롯된 동학은 혁명에 사상적·조직적 기반을 제공했다.

‘용담유사(龍潭遺詞)’는 ‘검가’를 비롯해 수운이 지은 한글가사(歌辭) 9편으로 구성된 핵심 동학경전이다.

다. 득도한 1860년부터 관에 의해 체포되는 1863년 사이에 경주 용담정과 남원 은적암 등지 피신과정에서 주로 쓰여졌다. ‘용담유사’는 1881년 충청도 단양 천동에서 목활자본으로 첫 간행됐고, 1883년에 ‘복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계미중추판)됐다.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계미중추판을 저본으로 삼아 MZ세대 위해 ‘용담유사’를 현대 한글로 새롭게 옮겼다. 수운은 민초들에게 익숙한 가사체 형식 속에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모든 사람은 제 안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등 새롭고 혁신적인 사상을 담았다. 득도 직후에 쓰여진 ‘용담가’에 ‘하늘님’이, ‘권학가’에 ‘보국안민(輔國安民·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小問答歌)’와 ‘안심가(安心歌)’에 ‘다시 개벽’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신간에 실린 가사 가운데 ‘검가’가 유독 눈길을 끈다. 1881년과 1883년 간행된 ‘용담유사’에는 실려있지 않은 가사다. 박 교수는 전북 진안 용담면에서 ‘검가’가 실려있는 신해년(1911년) 필사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발굴한 바 있다. 여러 판본에 실려있는 ‘검가’를 서로 비교·대조해 처음으로 정본화했다. 박 교수는 ‘칼노래’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수많은 농민군들을 혁명의 대열로 안아들게 하고, 근대식 무기 앞에서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우게 했다”고 말한다.



동학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19세기 민초들에게 사상적·조직적 기반을 제공했다.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1991년작 영화 ‘개벽(감독 임권택)’ 스틸컷.

책 말미에 붙여진 ‘동학의 길, 문명개벽의 길’이라는 제목의 해설을 통해 ‘살림의 사상’ 동학의 새로운 면모를 접할 수 있다. 박 교수는 “1860년에 탄생한 동학은 타자에 대해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상이었다”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용담유사’를 꼼꼼하게 읽으며 조선 후기 민초들의 마음속 결을 따라가 볼 일이다. <시민주한국문학·1만88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운 책

▲우리 패거리=보수 측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낙태를 ‘인구 통제 수단’으로 규정하는 세상. 태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대통령 ‘트릭 E. 디슨’이 등장하면서 기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 국민적 반감을 내비치며 정부를 향한 소요 사태까지 발생시킨다. 디슨은 백악관 내부의 은밀한 공간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청년이 폭동을 일으켰다’며 눈길을 돌리려 한다. <비채·1만6800원>

▲AGI시대와 인간의 미래=AI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안전, 보안 분야에서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점차 진화하는 AI 기술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 AI 기술인 구글 대담이나 엔비디아 등을 필두로 범용 인공지능기술의 영역인 ‘AGI’까지 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GPT-4o까지 등장하며 AI 기술은 극도로 고도화됐다. 위험이 되지 않는 안전한 AI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할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호모 테크니쿠스로 진화한 인류를 조명한다. <헤이박스·2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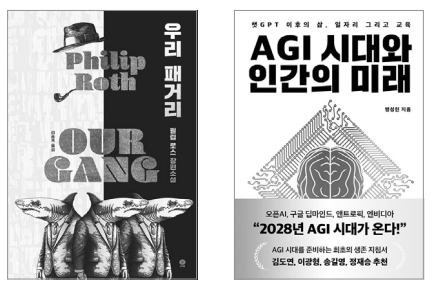
▲멘탈의 공식=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NFL의 전설 톰 브래디 등 챔피언들은 멘탈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들 또한 과거에는 학교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포지션 명단에서 뒤로 밀렸다는 등,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최고가 되는 데에만 집중한 것이 이들을 최고로 만든 멘탈관리 비결이다. MVP 슈퍼볼 데즈먼드 허워드 등은 모두 ‘하든’의 정신건강 관리 기법을 거쳤다. <반나·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신기한 과학 사전=20년 차 초등 교사가 교과 연계 과학책을 펴냈다.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62가지 현상을 ‘최소한’의 설명을 통해 쉽게 설명한다. 해수욕장에서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일까. 재치 있는 그림을 곁들여 저학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명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아기가 기하게 구성했다. <주니어김영사·1만4800원>

▲당신을 측정해 드립니다=기초, 심화, 종합 측정까지 체계적으로 당신을 측정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세상은 꼼꼼한 측정을 통해 채워진다. 키, 몸무게는 물론 식단, 운동 횟수, 소비 성향까지 모든 것이 측량을 통해 데이터화된다. 그러나 측정이 인간의 편의를 보장하는 이기로운 활동일까? 측정 행위의 본질에 대해 들여다본다. <사계절·1만6800원>



▲TJ1935 장수기업 태전 이야기=강산이 아홉 번 바뀌는 90년간 장수한 태전 기업의 비법은 무엇일까. 1935년 설립된 이후의약품 유통 기업으로 쏠려,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태전기업의 이야기를 담았다. 1조원대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자리이타 경영 이야기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 녹아 있다. 2·30년 전 영업 일선에서 성과를 내온 노하우와 현대식 경영 방법론 등이 실려 있다. <초록비책공장·2만원>

▲지리문화 개념 사전=오대양 육대주, 지도와 일기예보, 한반도와 이웃 나라 등 다양한 지리문화 개념에 대해 알려준다. ‘옥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아지 ‘멍이’, 고양이 ‘냥이’와 함께 어려운 지리문화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부터 위도, 경도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리개념 100가지를 다룬다. <다산어린이·2만2000원>

인상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예술 흐름 바꾼 열두 편의 전시

모던 빠리

박재연 지음



빈센트 반 고흐, 클로드 모네, 피에르-오귀스트 르누아르.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가들의 명단일 듯하다. 이들에게 붙여진 ‘인상주의 작가’라는 칭호는 1874년 파리의 한 전시장에서 시작된다. 권위적인 성향의 국가 주도 ‘살롱전’과는 다른 전시를 추구했던 일군의 작가들은 ‘제1회 화가·조각가·판화가 유한책임협동조합전시’를 열고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때 등장한 모네의 유명한 작품 ‘인상, 해돋이’는 ‘인상주의자’라는 새로운 집단을 탄생시켰다.

‘모두의 미술사’, ‘그림 약국’ 등을 펴낸 박재연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아방가르드 미술의 수도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 이야기를 담은 ‘모던 빠리-예술의 흐름을 바꾼 열두 편의 전

시’를 펴냈다.

이번 책은 미술 관련 책들이 주로 다루는 사조, 작품,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 대신, ‘전시’ 자체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전시는 항상 정치와 자본에 관한 일이다. 그 어떤 작가도 혼자 창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작품도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전시의 역사가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품고 과거의 미술을 살피고 지금의 전시를 경험한다면, 전시는 물론 그 안의 작품들이 보다 새로운 의미를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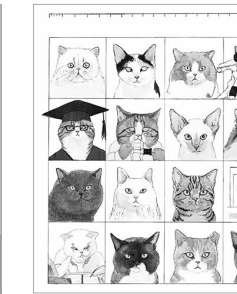
저자는 ‘새로운 전시는 어떤 종류의 관객을 만들어낼까?’ 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후 의미있는 12개의 전시를 선별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첫 등장 때는 언제나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언제나 이에 맞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내보이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치적인 선언이자 경제적인 전략으로 ‘전시’를 꾸렸다.

1884년 파리지 파빌리온에서 열린 ‘제1회 앙데팡당

전시’는 심시위원의 평가로부터 독립을 외친 전시로 기록된다. 이후 이 전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국제전으로 자리잡았고, 고흐는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몽크는 ‘절규’를 전시했다.

상업적 포스터가 예술로 등극한 전시도 있었다. 1894년 열린 ‘제1회 백인전’으로 이후 모두 53차례의 백인전이 열렸다. 대표 작가는 19세기 후반 파리의 보헤미안과 밤 문화를 묘사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툴루즈-로트레크로 그가 제작한 ‘백인전’ 포스터는 호평을 받았다. 또 한명의 스타인 체코 출신 작가 무하의 포스터 역시 화제가 됐으며 장식적인 디자인과 꽃 같은 자연주의 요소를 활용한 그의 패턴 등 독특한 아르누보 스타일은 광고부터 담배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활용됐다.

그밖에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잔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작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수집가였던 미술사 불라르가 1895년 열었던 ‘폴 세잔 회고전’, 공인과 전시를 결합한 ‘살롱 다다’, 세계 최초의 몰입형 체험 전시였던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 등도 만날 수 있다. <현암사·2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